고용노동부 | 보도설명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0.(화) 배포 즉시

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는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해 갈 예정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1.10(화) 한국경제, 「'5인 미만 근로기준법' 시동 거는 정부 … 소상공인·노동계 갈등 커지나」

2. 설명 내용

□ 현행 근로기준법은 **5인 미만 사업장**에 대해 **유급 공휴일, 근로시간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**

□ 1989년 근로기준법의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인권위(2008년, 2020년), 법제처(2018년) 등에서 권고하였고,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가 논의(2023년) 등이 있었으며,

○ 이재명 정부는 **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**를 국정과제로 채택, **과거 논의와 추진 시 애로사항**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

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**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성**과 **영세한 사업주의 취약한 노무관리 역량**과 **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**해야 하며,

○ 답을 정해놓지 않고 **노·사,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사회적 대화**를 통해 모두가 **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**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 송유나 (044-202-7526)
		담당자	사무관 강석원 (044-202-752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대체불가 대한민국 | OPEN